



SAN FRANCISCO  
OPERA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음악 감독 김은선과 2031년까지 5년 계약 연장 발표



김은선 (사진제공:김태환; Stefan Cohen)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2024년 10월 17일) —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극장장 Matthew Shilvock은 오늘 음악 감독 김은선의 계약 연장을 발표했다. 2030-31 시즌까지 이어지는 5년간의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김은선 음악 감독은 두번째 세기를 맞이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음악적 비전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것이다. 김 감독은 매 시즌마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주세페 베르디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가을 시즌,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선보이는 바그너의 마지막 오페라 *파르지팔*을 필두로 바그너의 기념비적인 *링 사이클*이 뒤따라 예정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102 년 간의 긴 역사 중 네 번째 음악 감독으로 2021 년부터 재임 중인 김 감독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재출발과 더불어 역사적인 2022-23 100 주년 시즌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극장 장 Matthew Shilvock 은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게 있어 다시 한번 김은선 지휘자와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하는 기쁜 날이다.” 라며 “김은선 지휘자는 우리 극장의 예술성을 탁월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그녀가 풀어내는 모든 음악에 생기와 섬세함, 그리고 따스함을 불어넣어 각 작품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오페라가 두 번째 세기를 맞이하며 소중한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 김은선과 함께 하는 것은 특권이다. 김 감독의 리더십이 이끌어 나가는 인간 창조의 광활한 궤적을 보노라면 대단히 감탄스럽다. 특히 그녀가 어떻게 바그너 작품을 그려나갈지 대단히 기대된다.” 라고 전했다.

김은선 음악 감독은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매일처럼 존재론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되어 온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오페라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라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예술가와 제작자, 행정가와 관객의 흔들림 없는 헌신 덕분에 우리는 함께 변화를 이루며 그 순간들을 만들어간다. 나 또한 그렇게 믿듯,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이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의 뜻에 힘입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 대한 나의 열정과 헌신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어나가고자 계약 연장을 수락했다. 나는 최고의 예술적 성취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내는 매일이 영광스럽고, 앞으로 수년 내에 이곳에서 이루어질 나의 첫 *링 사이클*이 기대가 된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전쟁 기념 무대에서의 모든 공연은 이 역사적인 극장의 유서 깊은 유산을 바탕으로 다시금 우리의 목적을 다지고 오페라의 미래를 위한 돌음 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라고 말을 이었다.

음악 감독으로서 김은선은 극장 장 Matthew Shilvock 과 캐스팅 디렉터 Gregory Henkel 과 협력하여 오페라 작품과 성악가 캐스팅을 결정한다. 또한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핵심 임원으로서 두 번째 세기를 맞이하는 이 극장의 예술적 방향성을 함께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음악감독으로서 그녀는 바그너와 베르디 시리즈 외에도, 내로라하는 오페라 계 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갈라 콘서트와 John Adams 의 현대 오페라 *Antony and Cleopatra* 의 세계 초연으로

100 주년 시즌을 이끌었다. 김 감독은 오케스트라와 음악 스태프 주요 보직 임명을 감독하며 또한 후원자 및 관객을 극장 속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왔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이사회 의장 Barbara A. Wolfe 와 회장 Jack Calhoun 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이사를 대표하여, 김은선 지휘자가 2031 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4-5 년 이후의 일정이 미리 계획되는 오페라 계에서, 이번 계약 연장은 우리 극장의 최고 수준의 예술성과 더불어 더 많은 관객 동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여태까지처럼 김 감독의 훌륭한 시너지가 오페라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어지는 것과 그녀가 이끌어내는 고결한 음악의 정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녀가 오케스트라 피트에 들어설 때 받는 환호는 그녀가 Bay Area 의 관객들과 쌓아온 놀라운 유대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김 감독은 이 곳에서 매우 특별한 것을 창조하고 있으며, 그녀가 계속해서 이 극장에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오케스트라 위원회 의장 겸 오보에 부수석 Gabriel Young 은 “김은선 지휘자의 연임에 오케스트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김 감독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예술인 오페라를 늘 신선한 아이디어와 명료함으로 접근함과 더불어, 깊은 리더십과 헌신, 또한 탁월함으로 이 오페라 하우스를 울린다. 그녀는 사려 깊은 동료이며 또한 우리의 예술가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는 강력한 지지자이다. 앞으로 그녀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미국 음악 예술가 조합(AGMA) 조합원들은 “김은선 음악감독이 연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김 감독은 성악가들의 역량을 아름답게 이끌어내는 훌륭한 지휘자이다. 그녀는 카리스마 있는 에너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언제나 명료하게 지휘한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합창단과 발레단의 조합원들은 김 감독의 음악적 리더십 아래 세계적 수준의 예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은선은 베르디의 *가면무도회*와 매년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열고있는 무료 콘서트 *Opera in the Park* 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102 번째 시즌을 열었다.

(사진제공: Stefan Cohen; Drew Altizer; Kristen Loken)

*San Francisco Chronicle* 지는 2019 년 6 월 김은선 음악 감독의 데뷔 무대였던 드보르작의 *루살카*를 “놀라운 생동감과 확신”이라며 호평하였고, 그 후 김은선 지휘자는 2019 년 12 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New York Times* 지는 이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김 감독은 그녀의 첫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지휘하며(10 월 19 일~11 월 5 일), 10 월 26 일에는 작품의 200 주년을 기념하여 베토벤의 *교향곡 제9 번*이 예정되어 있는데, 티켓의 조기 매진으로 많은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김은선: *로엔그린으로의 여정*에서의 스틸 컷  
(사진제공:샌프란시스코오페라/ 루마하이프로덕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뒤를 이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와 루마하이 프로덕션은 김은선의 여정을 다룬 새로운 영화 *김은선: 로엔그린으로의 여정*을 발표했다. *San Francisco Chronicle* 지에서 “매혹적이고 통찰력 있는” 이라는 수식어로 호평한 이 영화는 작년 10 월 바그너의 *로엔그린* 공연을

위한 리허설 기간 동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다. 김은선 음악 감독과 음악가와 예술가, 제작팀이 이 “음악적 에베레스트의 도전”에 맞서 “찬란한” 공연을 선보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11 월 1 일 금요일 오후 8 시에 KQED 9 에서 방영되며, 현재 [sfopera.com/digital](https://www.sfopera.com/digital) 과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지휘자 김은선

[김은선](#)은 2021 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오페라 *루살카*와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작곡가 존 아담스의 *앤서니와 클레오파트라* 세계 초연, *피델리오*,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등을 지휘했으며, 작곡가 베르디와 바그너의 주요 오페라를 매 시즌마다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비엔나 국립 오페라, 뮌헨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 오페라, 베를린 국립 극장, 라 스칼라 극장 등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하였다. 그녀의 2021 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데뷔 무대에 대하여 *New York Times* 는 클래식 음악계의 일약 스타라며 호평하였다.

지휘자 김은선은 2024-25 시즌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오페라 *가면무도회*. 그녀의 첫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이도메네오*가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11 월 오랫동안 기다려온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 가든에서 *토스카*로 데뷔 예정이며, 다시 방문하는 베를린 국립 오페라에서는 *시몬 보까네그라*를 선보인다. 또한 마드리드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LA 필하모닉에서의 연주와 세빌리아의 레알 오케스트라, 밀라노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그리고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의 데뷔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Bay area 에서 예술적인 우수성과 혁신성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로 인정을 받아왔다. 극장 장 Matthew Shilvock 그리고 음악 감독인 김은선의 리더십 하에,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오페라 공연, 젊은 예술가 양성을 넘어 새로운 오페라 작품의 저변을 넓히는 등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극장이다. 내년 가을 작곡가 Huang Ruo 와 David Henry Hwang 의 새로운 오페라 *The Monkey King* 을 시작으로 Missy Mazzoli 와 Royce

Vavrek 의 공동제작 *The Galloping Cure* 이 예정되어 있다. 102 번째 해를 맞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베르디 *가면 무도회*와 Poul Ruders 의 *The Handmaid's Tale* 를 비롯해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비제의 *카르멘*, 모짜르트의 *이도메네오* 그리고 푸치니의 *라보엠*과 베토벤 *교향곡 9 번*, 프라이드 콘서트를 선보인다.

#####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Julie Dickson, Jerome & Thao Dodson, The Dolby Family, Bertie Bialek Elliott, Keith & Priscilla Geeslin, Gordon P. Getty, Louise Gund, John A. & Cynthia Fry Gunn, Elizabeth B. Jamieson, in memory of Burgess Jamieson, Franklin & Catherine Johnson, Edmund W. & Jeannik Méquet Littlefield Fund, Steven M. Menzies, Bernard & Barbro Osher, Barbara Oshman, Marieke & Jeff Rothschild, Jan Shrem & Maria Manetti Shrem, Dianne & Tad Taube, Phyllis C. Wattis Endowment Funds, Diane B. Wilsey, Barbara A. Wolfe 및 익명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선: 로엔그린으로의 여정은 *춘자 강과 스티븐 강의 기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Grant for the Arts 예술 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Opera America 의 회원입니다.



공식 사진: 김은선 음악감독의 사진은 [sfopera.com/press](https://sfopera.com/pres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언론 정보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홍보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Julia Inouye (415) 565-6430 / [jinouye@sfopera.com](mailto:jinouye@sfopera.com)

Jeffery McMillan (415) 565-6451 / [jmcmillan@sfopera.com](mailto:jmcmillan@sfopera.com)

Teresa Concepcion (415) 565-6470 / [tconcepcion@sfopera.com](mailto:tconcepcion@sfopera.com)